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14연패 나락에 빠진 호랑이 왜?

프로답지 못한 정신력 팀 플레이를 망쳤다

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전에서 14연패의 수렁에 빠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호랑이들이 불명예스러운 연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연패의 나락까지 떨어진 KIA는 6일부터 잠실로 올라가 뚝심의 두산과 힘겨운 대결을 한다. 연패탈출을 고민해야하는 초라한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은 야수진과 마운드 그리고 벤치의 합작품이다.

◇한방만 노리는 병살타 왕국

KIA는 지난해 김상현·최희섭의 홈런왕 경쟁과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 등 '한 방'을 앞세워 V10의 고지를 밟았다. '한 방'의 극적인 효과에 도취된 KIA는 올 시즌 준비과정에서 타격 폼을 수정하는 등 장타력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결과는 최악이다. 홈런·장타율 부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홈런은 53개로 롯데(109개)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반면 병살타는 87개를 때려내 전체 1위에 올랐다. SK(44개)의 두 배다.

팀플레이도 사라졌다. 헛방망이질로 날을 새우고 있다.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 최희섭 홀로 3할 타율(0.304)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안치홍·이용규가 0.287과 0.284의 타율로 뒤를 따르고 있다. 정교한 타격을 자랑했던 김원섭도 0.240로 타율이 급락했고, 나지완도 0.220의 타율로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도루도 54개를 기록하는 데 그치며 최하위다. 장타력과 세밀함 그리고 기동력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마운드마저 '돌출 행동' 몰락 자초

2010시즌 KIA에게 타자들의 짠물 타격과 불펜의 난조가 더해진 패배공식이 생겼다. 추가득점이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마운드를 넘겨받은 불펜진들의 블론세이브, 그 뒤 추격 실패로 인한 역전패가 그 공식이다.

■KIA 타격 부문 1위팀과 비교

	KIA	1위팀
타 율	0.253	0.291(두산)
홈 런	53개	109개(롯데)
장타율	0.363	0.456(롯데)
병 살	82개	44개(SK)
도 루	54개	95개(SK)

똑같은 실패가 계속되면서 '5할 본능'을 힘들게 지켜내던 최후의 보루 선발진마저 두 손을 들었다. 14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선발투수가 기록한 패가 11개다. 뒷문이 무너진데 이어 앞문까지 뚫리면서 맥빠진 플레이가 속출하고 있다.

같은 실패가 계속되면서도 숨을 고를 여유를 갖지 못했던 불펜진은 위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마운드에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신력 문제다. 그라운드에서 가장 침착해야할 선발진은 마운드 밖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거나 의자를 내던지는 등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보여줬다.

◇주전-백업 격차 방치한 '코칭 스태프'

KIA는 올 시즌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른 기용보다는 기존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1진이 탈이 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2군으로 내리면서 신진을 끌어올리는 선수기용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1.5군 선수들은 '실수=2군행'이라는 긴장감에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일수다. 주전급 선수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1군에 그냥 두는 경우가 잦아 경쟁유도가 되지 않고 있다.

3년째 주전과 백업 요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 크다.

올해만 해도 기대를 모았던 전지훈련 MVP 전태현은 부진과 부상으로 재활군이 됐고, 타선의 기대주였던 이종환과 최용규 역시 2군으로 추락했다. 또 다른 전지훈련 MVP 이동현·김경언은 한화로 트레이드 됐다.

선수들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능력도 부족했다. 올 시즌 정식선수가 된 경험부족의 이종환은 최근 두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대타로 나섰다가 체면만 구기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연패기간 KIA의 대타 타율은 15타수 2안타, 0.133에 불과하다.

전력보충을 게을리 한 것도 중요한 부진 이유다.

◇두산과 3연전…연패 더 길어질 수도

KIA는 6일부터 잠실을 찾아 두산과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용병 로페즈가 가장 먼저 선발로 출격한다.

두산은 지난 주말 1위 독주중인 SK와의 대결에서 2연패를 당했지만 전력은 여전하다. 팀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은 최근 선발진까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2연패를 당하기 전에는 6연승을 챙겼다.

KIA는 6월 마지막 주말 두산과의 대결에서 선발로 나선 로페즈-서재응-콜론이 줄줄이 패전투수가 되는 등 올 시즌 3승7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힘빠진 호랑이를 상대로 두산의 전력투구가 예상되는 만큼 KIA의 연패는 더 길어 질 수 있다.

그나마의 희망은 최희섭의 복귀다. 지난 주 SK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며 가슴 타박상을 입었던 최희섭이 전력에 재합류해 연패 탈출의 도우미로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올스타전 내일부터 입장권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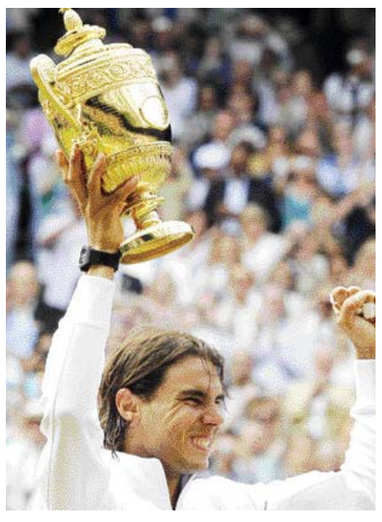
7일부터 프로야구 올스타전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가 7일 오후 1시부터 G마켓(www.gmarket.co.kr)과 ARS(1566-5702)를 통해 입장권 예매에 들어간다.

이번 올스타전은 오는 24일 대구구장에서 진행되며 입장권 가격은 지정석이 8천원(학생 5천원, 어린이 3천원), 일반석은 6천원(학생.경로 3천원, 어린이 2천원)이다.

이외에도 특별석 2만원, 커플석(2인기준) 4만원, 내야테이블석 1만2천원, 외야테이블 3인석이 2만원, 4인석이 2만5천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달 윔블던테니스 정상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정상을 2년 만에 되찾았다.

나달은 5일(한국시간)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토마스 베르디흐(13위.체코)를 3-0(6-3 7-5 6-4)으로 꺾고 우승했다 2008년 이 대회 남자단식에서 정상에 올랐던 나달은 지난해 무릎 부상 탓에 출전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00만 파운드(한화 18억6천만원)다.

클레이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에서만 무려 5회 우승했던 나달은 2009년 호주오픈과 윔블던에서 두 차례 등 모두 8차례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국잔치된 LPGA… 최나연 웃다

코닝클래식 '코리안 시스터스'끼리 연장전 끝 시즌 첫 우승

최나연(23·SK텔레콤·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코리안 시스터스'끼리 벌인 연장전 끝에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최나연은 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맹추격을 해온 김인경(22·하나금융), 김송희(22·하이트), 재미교포 김초롱(26) 3명과 14언더파 270타로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첫번째 연장전에서 모두 파를 적어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연장 두번째 홀인 17번홀(파5)에서 최나연은 1m가 되지 않는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지었다.

비록 마지막날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나흘연속 선두를 지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기록을 세운 최나연은 개인 통산 LPGA 투어 세번째 우승컵과 함께 상금 15만달러를 받았고 한국 군단은 시즌 4승을 합작했다. 여름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한국 군단은 혼자 4승을 올린 미야자토 아이(일본), 2승을 올린 크리스티 커(미국)에 한동안 밀리는 듯 했지만 최나연의 우승으로 하반기 대반격을 예고했다. 3라운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대회 내내 좋은 샷 감각을 유지했던 최나연은 마지막날 다소 흔들렸다. 전반에 1타를 줄였던 최나연은 13번홀(파3)과 14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고 이 사이 김인경과 김송희는 각각 7타와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르며 공동 1위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동반 플레이를 펼쳤던 김초롱도 17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로 나서면서 최나연은 우승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선두 그룹에 1타 뒤진 채 마지막 홀에 올라선 최나연은 5m나 되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연장전에 합류한 뒤 우승컵을 차지하는 뒷심을 보여줬다.

맹장 수술로 한동안 대회에 나서지 못했던 신지애(22·미래에셋)는 마지막날 7언더파 64타를 치며 추격에 나섰지만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5위(13언더파 271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위창수 시즌 두번째 '톱 10' 입성

PGA AT&T 내셔널 4위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총상금 620만달러)에서 시즌 두번째 '톱10'에 입상했다.

위창수는 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민크 골프장(파70.7천23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4위(7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지난 3월 혼다 클래식 8위에 이어 시즌 두번째 '톱10' 입상.

지난달 초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로즈는 한 달 만에 승수를 보탰다. 로즈는 한때 5타차 선두를 질주했지만 10(파4), 11번홀(파4) 연속 보기를 저지르며 추격을 허용, 라이언 무어(미국)를 1타차로 간신히 따돌렸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0타를 친 로즈는 이날 이글 1개, 버디 2개, 보기 4개를 묶어 이븐파 70타에 그쳤고 무어는 버디 6개를 잡아내며 5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오버파 71타를 친 우즈는 공동46위(4오버파 284타)에 머물렀다. 4라운드 내내 한번도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했다.

우즈가 투어 대회에서 나흘 동안 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2007년 마스터스 이후 3년 만이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양학선 '뜀틀' 세계 정상급 기량

재팬컵 국제초청체조대회 단체전서 세계 1위 드라굴레스쿠에 0.3점차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대

남자 기계체조를 이끌어 갈 유망주 양학선(18·광주체고·사진)이 도마(뜀틀)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내며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양학선은 4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끝난 2010 재팬컵 국제초청체조대회 단체전에 출전, 장기인 도마에서 16.15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도마 점수만 놓고 보면 대회에 참가한 8개국 40명 선수 가운데 이 부문 세계 최고 봉이라는 마리안 드라굴레스쿠(16.450점.루마니아), 홈팀의 이점을 누린 일본의 야마무로 고지(16.400점)와 우치무라 고헤이(16.200점)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용수철같은 탄력이 돋보이는 드라굴레스쿠는 2001년과 2005~2006년 세 차례나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정상을 밟은 '전설'이다. 비록 초청대회였으나 양학선이 세계 톱 클래스인 드라굴레스쿠에게 0.300점 차로 다가서면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지난 3월 아시아주니어체조대회 도마에서 우승한 양학선은 이 종목 국내 1인자로 세계 최고 수준인 7.2점짜리 기술을 펼친다.

지난 5월 전국체고대회와 대표 1차 선발전에서 7.2점짜리 난도를 선보이고도 실시점수가 낮아 각각 15.450점과 15.600점을 얻는 데 그쳤던 양학선은 재팬컵 대회에서 16점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조성동 대표팀 감독은 5일 "양학선이 사실상 첫 시니어 대회에 출전해 좋은 연기를 펼쳤다. 긴장한 탓인지 착지 때 서너 발자국을 움직였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칭찬했다. /연합뉴스